

학 생 회 보

제 16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학생회

1993 년 3 월

학 생 회 보

제 16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학생회

1993 년 3 월

《 목 차 》

30년을 내다보는 역사전문가가 되자	학생회장	1
1993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 학생회 사업계획		
1) 연구부		2
2) 섭외부		3
3) 편집부		4
92학년도 학생회 활동을 마감하며	박경석	5
각 전공별 상황 보고		7
기획 기사 - 국회도서관 이용 안내	장 신	9
1993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 개설과목 안내		11
'93 상반기 전공 답사를 다녀와서	원재린	16
모꼬지를 다녀와서	편집부	19
학내외 동정		21
1993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 학사일정표		24
편집후기		25

1. 1994

2. 1995

3. 1996

4. 1997

5. 1998

6. 1999

7. 2000

8. 2001

9. 2002

10. 2003

11. 2004

12. 2005

13. 2006

14. 2007

15. 2008

16. 2009

17. 2010

18. 2011

19. 2012

20. 2013

21. 2014

22. 2015

23. 2016

24. 2017

25. 2018

26. 2019

27. 2020

28. 2021

29. 2022

30. 2023

31. 2024

32. 2025

33. 2026

34. 2027

35. 2028

36. 2029

37. 2030

38. 2031

39. 2032

40. 2033

41. 2034

42. 2035

43. 2036

44. 2037

45. 2038

46. 2039

47. 2040

48. 2041

49. 2042

50. 2043

51. 2044

52. 2045

53. 2046

54. 2047

55. 2048

56. 2049

57. 2050

58. 2051

59. 2052

60. 2053

61. 2054

62. 2055

63. 2056

64. 2057

65. 2058

66. 2059

67. 2060

68. 2061

69. 2062

70. 2063

71. 2064

72. 2065

73. 2066

74. 2067

75. 2068

76. 2069

77. 2070

78. 2071

79. 2072

80. 2073

81. 2074

82. 2075

83. 2076

84. 2077

85. 2078

86. 2079

87. 2080

88. 2081

89. 2082

90. 2083

91. 2084

92. 2085

93. 2086

94. 2087

95. 2088

96. 2089

97. 2090

98. 2091

99. 2092

100. 2093

101. 2094

102. 2095

103. 2096

104. 2097

105. 2098

106. 2099

107. 2100

108. 2101

109. 2102

110. 2103

111. 2104

112. 2105

113. 2106

114. 2107

115. 2108

116. 2109

117. 2110

118. 2111

119. 2112

120. 2113

121. 2114

122. 2115

123. 2116

124. 2117

125. 2118

126. 2119

127. 2120

128. 2121

129. 2122

130. 2123

131. 2124

132. 2125

133. 2126

134. 2127

135. 2128

136. 2129

137. 2130

138. 2131

139. 2132

140. 2133

141. 2134

142. 2135

143. 2136

144. 2137

145. 2138

146. 2139

147. 2140

148. 2141

149. 2142

150. 2143

151. 2144

152. 2145

153. 2146

154. 2147

155. 2148

156. 2149

157. 2150

158. 2151

159. 2152

160. 2153

161. 2154

162. 2155

163. 2156

164. 2157

165. 2158

166. 2159

167. 2160

168. 2161

169. 2162

170. 2163

171. 2164

172. 2165

173. 2166

174. 2167

175. 2168

176. 2169

177. 2170

178. 2171

179. 2172

180. 2173

181. 2174

182. 2175

183. 2176

184. 2177

185. 2178

186. 2179

187. 2180

188. 2181

189. 2182

190. 2183

191. 2184

192. 2185

193. 2186

194. 2187

195. 2188

196. 2189

197. 2190

198. 2191

199. 2192

200. 2193

201. 2194

202. 2195

203. 2196

204. 2197

205. 2198

206. 2199

207. 2200

208. 2201

209. 2202

210. 2203

211. 2204

212. 2205

213. 2206

214. 2207

215. 2208

216. 2209

217. 2210

218. 2211

219. 2212

220. 2213

221. 2214

222. 2215

223. 2216

224. 2217

225. 2218

226. 2219

227. 2220

228. 2221

229. 2222

230. 2223

231. 2224

232. 2225

233. 2226

234. 2227

235. 2228

236. 2229

237. 2230

238. 2231

239. 2232

240. 2233

241. 2234

242. 2235

243. 2236

244. 2237

245. 2238

246. 2239

247. 2240

248. 2241

249. 2242

250. 2243

251. 2244

252. 2245

253. 2246

254. 2247

255. 2248

256. 2249

257. 2250

258. 2251

259. 2252

260. 2253

261. 2254

262. 2255

263. 2256

264. 2257

265. 2258

266. 2259

267. 2260

268. 2261

269. 2262

270. 2263

271. 2264

272. 2265

273. 2266

274. 2267

275. 2268

276. 2269

277. 2270

278. 2271

279. 2272

280. 2273

281. 2274

282. 2275

283. 2276

284.

30년을 내다보는 역사전문가가 되자 !!

학생회장 왕 현 중 (박 1)

오즈음 들어 원로 사학자의 퇴진과 더불어 그분들의 학문적 회고담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해방직후 좌우의 이념적 갈등을 겪으며 제대로 학문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 때,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하루종일 필사하던 그들, 일제의 식민사학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으로 나름대로 연구의 방향을 잡아나가면서 지낸 세월, 이제 그들은 연구자로서의 삶을 마감하며 사라져간다.

오늘날 학문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역사연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학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수많은 역사연구자의 양산, 이제 다루지 않는 주제가 없을 정도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자료, 반면 더욱 좁아만가는 취업의 문.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려진 자료와 논문을 '패스티쉬(혼성모방)' 기법을 이용하여 이것저것 긁어모아 어설픈 글을 지어내고 있는 않는다. 현란한 대중문화를 통해 민족, 계급문제를 호도하려는 세태에 추수하며 온실속의 연구자로 머무르려 하는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10년후에라도 연구자로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는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현실문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역사를 연구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자기 학문에 생명력을 가지려면 1990년대 한국사회의 척박한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학문적 소양과 개성을 키워가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역사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진짜 프로의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만날 수 있는 보루다. 아무리 보따리장수로 일용잡직 노동자의 지위에 있을 지라도.....

현실과 부딪치며, 방향을 찾고, 허위와 맞서서, 진실을 밝히자. 그러면 30년후에 그대의 역사학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1993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 학생회 사업계획

1) 연구부

이번 학기 연구부의 주요 사업으로 1993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제 6회 학림제를 계획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원 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공지하여 보다 나은 대학원 생활을 하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신입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학문 연구에 대한 진지한 문제 의식과 대학원 생활에 임하는 자세, 예비 연구자로서의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신입생들의 생각과 선배 연구자들의 경험을 듣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각 전공별로 선배 연구자들이 전공하고 있는 주제와 연구 상황, 학계의 동향, 학술 운동의 현황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1993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석사 과정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7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학림제는 사학과 성원들의 공동 연구와 공동 발표, 토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학술제로서, 대학원생 모두가 참여하는 사학과 대학원 최대의 행사이다. 매학기마다 개최되는 학림제의 의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섯 번 실시된 학림제는 사학과 대학원 최대의 행사라고 하기에는 그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보충되어야 할 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는, 앞으로 학림제가 정기적이고 비중있는 행사로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우선 학림제의 형식을 정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학림제의 형식으로 가능한 것으로서 ① 각 전공별 스터디 성과를 발표 ②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각 전공별로 발표 ③ 커다란 하나의 연구를 발표하고 그와 관련된 소주제를 약정 토론식으로 발표 ④ 졸업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 (이 경우 『學林』에 발표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⑤ 우리과를 졸업한 선배들이나 선생님

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형식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계획 시안에 불과하며, 학림제의 개최 형식을 이 중에서 한 가지로 정형화 할 것인가, 또는 몇 가지의 틀을 정해놓고 그때그때 가능한 방안을 채택하거나 미리 계획된 틀에 맞추어 학림제를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제 6회 학림제는 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졸업한 선배나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학계의 경향과 연구 내용을 듣는 강연회 형식으로 개최하고자 하며, 개최 날짜는 5월 둘째 주로 잡고 있다. 강연자는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2) 섭외부

현재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 편집부, 복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부회장이 지난 학기부터 공석 상태이고, 회장은 졸업과 함께 군입대를 함으로써 원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원총 사업은 권한 대행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1993년 2월 25일 과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원총은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측에 전달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 1993학년도 제 1학기 사업으로 연간 4회의 워크숍,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원우론집』을 발간한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 수익사업의 일환인 알뜰샘(문구점), 슬기샘(서점) 등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토대로 각 과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섭외부는 원총의 사업 내용을 과 대학원 학생회에 전달하고 과 학생회의 의견을 신속히 원총에 전달하여 과 학생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표로 한다. 따라서 과 성원들은 전공 세미나의 주제나 인적 구성에서부터 필요한 물건이나 연구비 지원 사항에 대한 것을 섭외부에 요청하기 바란다. 특히 4월쯤에 알뜰샘의 이익금이 우리과에 배분될 것이므로 참고하여 유용하게 쓰도록 할 생각이다.

3) 편집부

편집부는 사학과 대학원 소식지인 학생회보를 발간하고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학생회보는 정기적으로 한 학기에 두 번(학기 초와 학기 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번 학기부터는 16면의 신문 체제에서 20~30면 정도의 회보 형식으로 확대시키려고 한다. 내용면에서 기본적인 틀은 변화시키지 않지만, 증가된 지면을 소식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꾸밀 계획이다. 대학원 안에서도 한국사·동양사·서양사 전공자들이 서로의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강의, 행사, 회원과 동문들의 소식 등을 외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회원이나 동문들에게도 알려져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신간서적에 대한 안내나 서평, 제언, 기고문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실을 것이므로 관심이 있는 회원이나 동문은 언제든지 편집부로 원고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특별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1993학년도 제 2학기 사학과 대학원 학생회비를 수납합니다. (박사과정 12,000원, 석사과정 6,000원) 총무나 각 전공대표에게 주시거나, 한일은행 연세지점 '126-01-36968 사학'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학생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92학년도 학생회 활동을 마감하며

박 경 석 (석 5)

92학년도 학생회는 1992년 2월초, 집행부를 구성하고 제법 뜨거운 열의 속에서 그 첫발을 내디뎠다. 그것은 91-2학기 정기총회에서 보여준 학생회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뜨거운 애정에 힘입은 바 컸다. 이에, 본학생회는 할 수 있는 만큼을 내실있게 실행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기 보다는 기존에 시행되어온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몇가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있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92학년도 활동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역시 학림제이다. 1학기에는 모두 네분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강연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기획단계에서 說往說來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참신한 기획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2학기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고 발표의 질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맥이 닿는 주제를 놓고 학림제만을 위한 두 편의 글이 준비되었던 것은 당시 학생회의 역량으로 보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학림제는 사학과 대학원의 공동체의식과 학술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로서 앞으로도 정성스런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보람스러웠던 일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정례화시킨 일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전임 집행부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그 방침과 의미가 불명확하였으나, 본 집행부에서 현재의 1,2,3학기생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실시함으로써 나름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발전적 방향으로의 개선이 없었던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편집부장의 講을 받고 92학년도 학생회 활동을 회고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람스러운 면보다 미흡함과 아쉬움이 더 많았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은 것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역시 '할 수 있는 만큼'이란 방침에 기대어 안일함 속에서 학생회 활동을 대

했던 점이다. 편집회보의 문제, 새로운 사업의 개발(체육대회, 야유회 등), 동문회 건설에 대한 적극적 참여, 연구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몇가지 활동 등에 소홀했던 것은 모두 이에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나태함과 자중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1년간의 학생회 활동은 보람있는 경험이었다. 무엇보다도 활동 중에 좋은 선·후배들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큰 즐거움이었다. 그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93학년도 학생회의 앞날에 보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합동연구실에서는 동문 선배님들의 출판된 책이나 발표된 논문의 별쇄본을 기증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사학연구회 (우편번호 120-749)」입니다. 동문 선배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출하고 반납하지 않은 합동연구실 도서를 가지고 계신 회원과 동문께서는 연체료와 함께 속히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공별 상황 보고

《 한국사 》

대림동 역사연구실에서는 월 1회 월례발표회를 통하여 완성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연구실 내 현대사반에서 진행되는 스터디에서는 석사과정생은 준비하고 있는 논문의 초고나 구상, 목표 등을 발표·토론하고, 졸업자 역시 자신의 향후 논문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비평을 받고 있다. 또 조선후기반에서는 각자 논문주제에 대한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봉건반 연구실에서는 『高麗史』 색인 작업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고대사반에서는 『三國史記』 志와 列傳을 강독하고 그 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있으며, 금석문을 강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동양사 》

연세동양사연구실(아현동)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유용태(박사 4학기) 학형이 〈中國共產黨 創建時期의 黨 組織論의 傳播와 受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5일 김희교(석사 마침) 학형이 〈義和團運動과 美國의 對中國政策〉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한번씩 연세동양사연구실 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각 전공별로 보면 고·중세사반에서는 《史記》 列傳을 강독하고 있고, 근대사반에서는 《Ching Document》를 강독하다가 사정상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현대사반에서는 92년 1월부터 《中共中央文件選集》을, 10월부터 《中國國民黨歷次大會文件資料回編》을

강독하고 있다. 일본사반에서는 92년 2학기부터 진행된 天皇制에 관한 세미나가 3월 23일 정리모임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93년 1학기에는 개설된 강의(근대 일본 사료)에 충실할 예정이다.

《 서양사 》

지난 3월 3일 열린 서양사 전공모임에서는 정기적인 서양사 전공모임과 관심분야를 토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 마련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과거에도 서양사 전공자들의 공동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전공자의 수가 감소하고 그나마 영국사, 프랑스사, 독일사, 미국사, 러시아사 등 관심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진 관계로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학사·역사 이론 등을 주제로 하는 스터디는 일정한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각국사별로 서로의 관심 분야와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월례 발표회의 형식으로 먼저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종훈(석사 6학기), 박영민(석사 5학기) 학형이 구상 중인 논문의 주제와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오붓한(?) 토론 시간과 뒷풀이를 가지기로 하였다.

연락처가 바뀐 회원과 동문께서는 사학과 학생회 편집부(연세대학교 사학과 사무실 ☎ 02-361-2370)로 바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거나 학생회보를 발송하는 데 필요합니다.

국회도서관 이용 안내

장 신 (석 5)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그동안 까다롭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국회도서관(이하 국회)의 출입이 수월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객이 늘어 더 복잡해졌지만.

각설하고 국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학교에서는 133-2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배차간격은 약 10분이고 30분 정도 걸린다. 국회정문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이 도서관이다. 정문에서 간단한 신원확인절차를 거치고(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다시 도서관 입구에서 수속을 밟는다. 입구에서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제시하면 대출표 2개와 출입증을 준다. 대출표 1개당 5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다. 2개가 필요한 까닭은 동시에 서로 다른 서고를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대출계에서 책을 빌린후 남은 하나로 정기간행물실 또는 학위논문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의 검색은 단말기와 Card목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말기는 약간 까다롭지만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직원 曰). 카드목록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책의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배운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2층에 소장도서목록이 있으므로 진득히 앉아서 보는 것도 괜찮다. 일반단행본을 제외한 모든 서고는 개가식이다.

복사는 1층에 있는 구내복사실을 이용한다. 학위논문은 5권까지 전권 복사가 가능하다. 일반단행본은 500쪽까지 가능한데, 전권복사는 안된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약간의 예외는 가능한데, 약 200쪽 분량의 책이라던가 아니면 표지와 제록만을 빼고 한다면 가능할 때도 있다. 복사실이 매우 붐비기 때문에 오전 중에 일을 끝맺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복사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옆에 두고 볼 사람들은 관

외대출을 해야한다. 원칙상 관외대출은 금지되어 있지만, 국회도서관 직원, 국회의원, 의원보좌관들에게는 관외대출이 허용된다. 그리고 귀한 책은 가능하면 밖으로 대출해서 여러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으므로, 지연·혈연·학연 등 가능한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학교에서 자주 보는 사람 중에 이런 굉장한 background를 가진 인사로는 한국사의 김 모씨, 동양사의 임모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복사실 옆에 있는 마이크로필름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죽치고 앉아 보아도 된다. 10장 이내의 소량복사는 무료로 해주지만 일정한도 이상이 되면 복사를 해주지 않는다.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국회에만 있는 자료가 아니라면 국립중앙도서관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찾고 난 뒤 배가 고파지면, 지하의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시간은 12~1시까지인데, 가격은 1200원으로 수준은 3~4천원 수준이다. 약간의 불편함에도 개의치 않고 국회를 찾는 이유가 식사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참! 양도 많다. 식사를 한 뒤 옆의 매점에서 차를 한잔 하고 복사물을 찾아 나오면 국회에서 할일은 거의 끝난셈이다. 돌아오는 길은 마땅한 차편이 없어 다소 불편하지만 모처럼 시간을 내어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분을 넘직도 하다.

1993년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 개설과목 안내

《 한국사 》

강의명 : 한국중세의 사회경제사상 3

담당교수 : 김준석 선생님

강의내용 : 한국중세사회의 성격을 지배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주자학을 사상사적 견지(주자학이 현실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 하는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본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주자학에 관계된 연구사를 정리한다. 즉, 시기별로는 전근대와 근대, 지역별로는 동북아 3국(한국-중국-일본)으로 구분하여 해당시기 각 지역의 주자학 연구성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강의명 : 한국근대사의 제문제 1

담당교수 : 김용섭 선생님

강의내용 : 조선 후기 특히 그 중에서도 18세기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가 진행된다. 이미 92년도 2학기에 18세기 사회경제와 정치체제를 다루었으므로, 이번 학기에는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질서”, “18세기 사상계의 동향과 타개책”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명 : 한국중세사 연습 1

담당교수 : 하현강 선생님

강의내용 : 이번학기는 고려시대 정치지배세력이란 제목 아래 고려시대 전반의 정치지배세력의 변화를 현재까지 나온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정리하고, 현 학계의 연구동향을 알아본다. 수강인원이 많은 관계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나누어서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고 박사과정은 한학기 동안 고려시대사에 관한 연구

주제를 잡아서 리포트형식으로 발표를 한다.

강의명 : 한국고대의 사회구조

담당교수 : 이희덕 선생님

강의내용 : 고구려사의 제문제 - 국가성립, 정치조직, 사회, 문화, 사상 -
를 다룬다. 『삼국사기』와 『위지동이전』의 기사를 중심으로 당시
를 개관하고,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초기 연구성과물인 20여
편의 논문을 발췌·정리하면서 내용을 분석·비판하는 논문발제
식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강의명 : 한국현대사 연습

담당교수 : 정창렬 선생님

강의내용 : 45년 해방이후 전개된 한국현대사를 당시 활동했던 주요 인물들
의 행적과 사상 그리고 중심적인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 시기별로 제기되는 쟁점사항에 각 인물들은 어떠한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어느
세력과 대립관계에 있었는가를 알아본다. 주요인물로는 이승만,
박헌영, 여운형 등, 주요 단체로는 북조선노동당, 남조선노동당,
한국민주당 등을 공부할 예정이다.

《 동양사 》

강의명 : 중국사학사 연습

담당교수 : 황원구 선생님

강의내용 : 중국의 주요 역사서를 형식과 시대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
리하고 각 시대별로 제기되는 역사이론과 그 비판을 주요내용으
로 한다.

강의명 : 중국사상사 연구

담당교수 : 민영규 선생님

강의내용 : 중국 사상사

강의명 : 중국 중세 사료 연구

담당교수 : 김유철 선생님

강의내용 : 魏晉南北朝 시기의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顏之推의 《顏氏家訓》의 강독을 주로 하게 된다. 《顏氏家訓》의 저자인 顏之推는 南朝 梁代에 처음 입사하여 侯景의 난으로 인하여 北朝에 잡혀가 北齊에서부터 시작하여 隋代까지 관직에 오른 인물로, 그의 책은 당시의 혼란한 상황을 겪고난 후 자손들에게 당시의 처세에 관하여 서술한 것으로, 당시 士大夫의 사회에 관한 관념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강의명 : 근대 일본 사료

담당교수 : 박환무 선생님

강의내용 : 근대 일본 정치사의 사료 가운데 천황과 관계된 부분에 대한 문헌사료의 강독과 토론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사료집인 日本近代思想大系 제 2권 遠山茂樹, 《天皇と華族》과 그 해설본인 遠山の 《明治維新と天皇》를 주교재로 하고 필요한 논문을 읽고 있다.

강의명 : 현대 중국 사료 연구

담당교수 : 김수영 선생님

강의내용 : 맑시즘이 중국에 수용·확산되고, 모택동사상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중국맑시즘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검토과정 중 무정부주의의 영향과 중국의 노동 운동, 모택동 사상과 레닌당과의 관계가 소주제로 다루어진다. 수업은 학생들의 토론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의 연구성과를 주교재로 한다.

《 서양사 》

강의명 : 서양 봉건 사회 연구

담당교수 : 고성환 선생님

강의내용 : 중세 도시와 시민

강의명 : 영국 헌정사 연구

담당교수 : 최선흥 선생님

강의내용 : 한 시대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고 정치구조의 조직과 그 존립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 그리고 문화·사상적 배경까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 헌정사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앵글로-색슨 시대로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왕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국 정치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lin Rhys Lovell의 *English Constitutional and Legal History* (New York, 1962)를 주교재로 하고 각 주제마다 필요한 문헌들을 보충한다.

강의명 : 프랑스사 연습 1

담당교수 : 전수연 선생님

강의내용 : 시민혁명과 산업화에 대한 문제가 유럽사 연구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그 전시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는 시민혁명의 전 단계인 절대주의(absolutism) 체제를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른 유럽국가들을 비교적으로 고찰한다. John Miller가 편집한 *Absolutism in Seventeenth-Century Europe* (London, 1990)과 Keith Michael Baker가 편집한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Old Regime* (Pergamon Press, 1987)을 주교재로 하고 필요한 다른 논문들을 보충적으로 살펴본다.

강의명 : 독일사 연습 2

담당교수 : 천진석 선생님

강의내용 : 나찌즘의 출현은 전후 독일에서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빌레펠트 학파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서독의 비판적 역사학자들은 나찌즘의 출현을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독일이 걸어난 특수한 길(*der Deutsche Sonderweg*) 이론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독일 제정시대(1871-1918)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독일 근대사 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된다. 이번 학기에는 제정시대를 분석함에 있어 비판적 역사학 진영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보수주의를 비롯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해석을 비교·검토한다. Hans-Ulrich Wehler의 *Das Deutsche Kaiserreich 1871-1918* (Göttingen, 1983)를 기본적으로 읽어나가면서 Winfried Baumgart, *Deutschland im Zeitalter des Imperialismus 1890-1914* (Stuttgart, 1986) ; Thomas Nipperdey, *Deutsche Geschichte 1866-1918 I II* (München, 1990) ; Gerhard A. Ritter, *Das Deutsche Kaiserreich 1871-1914* (Göttingen, 1981)를 보조적으로 살펴본다.

'93 상반기 전공 답사를 다녀와서

원재린 (석 2)

1993년 2월 15일 월요일. 오늘은 한국사 전공자들이 安東지역으로 현대사 답사가 가는 날이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그리 멀지 않은 봄에 대한 기다림과 일상적인 공부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야릇한 해방감 때문인지 주변이 온통 밝고 따사롭게 느껴졌다. 비록 출발전 숙취에 시달려 늦게온 김모 선배님 때문에 플랫폼까지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우리일행 10명은 무사히 정시(오전 11시)에 安東行 무궁화열차를 탈 수 있었다. 누가 그랬던가? 답사는 '踏寺'라고. 그래서 매번 절만 보고 돌아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전공답사는 본래 踏寺의 취지와는 달랐다. 우선 선정 시기가 현재 우리의 삶의 구조를 틀지운 현대사였고, 답사 방식도 당시 여러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생존 인물들 중심의 인터뷰였다. 그래서 지난 여름 지역적으로 관광지와 근접하였던 강원도 일대를 답사했던 나로써는 이번 전공답사에 거는 기대가 컸다. 때문에 2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청(?)해서 安東지역개관을 맡는등 왕성한 참여욕을 보였다.

安東驛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 30분, 미리 정해진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첫번째 인터뷰 대상자이신 김을동 할아버지를 찾아 뵈었다. 金할아버지께서는 少時的부터 일제하 安東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老年에 문중의 도움을 받아 安東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한 한두권의 책자를 냈다고 하셨다. 보여주시는 책자의 내용은 풍부한 지역자료를 바탕으로 安東지역을 중심으로한 일제하 독립운동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대담 과정에서, 대부분 비전공자들인 우리들은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전공답사의 핵심인 전문성을 끌어내기에 조금 부족하였다. 따라서 풍부한 전공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의 불참이 아쉬웠다. 무사히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가 고대하던 밤이 왔다. 역시 답사의 진수는 저녁일정이었다. 주제발제를 하는 동안 반쯤 감겼던 성원들의 눈은 발제가 끝나고 방안으로 속속 반입되어오는 酒類를 보자 다시 초롱초롱해졌고 방안은 활기에 가득찼다. 黨派의 分爭이 얼마나 우리역사에 패해를 끼쳤는지를 충분히 아는 史學徒들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는 구모선배를 중심으로한 극소수의 ‘燒酒左派’ (방에서 왼쪽에 모임)와 나머지 대다수의 ‘麥酒右派’로 나뉘어졌고, 가운데 수북히 쌓인 안주를 중심으로 희뿌연 담배연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며 술병들을 차례차례 비워갔다.

다음날 아직 술이 덜 깨인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이틀째 일정을 強行하였다. 먼저 1927년 安東지역 新幹會 會長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지역운동을 벌이셨던 柳寅植씨의 孫子인 유기원 할아버지를 찾아 뵈었다. 일흔이 넘으신 年歲에도 불구하고 우리일행을 마을 어귀까지 마중나오신 柳할아버지는 산중턱 과수원 가운데 위치한 당신의 집으로 안내해 주셨다. 역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老夫婦 두분만이 거처하는 좁은 방 안에서 자리는 비록 불편했지만 우리는 유인식씨에 대한 생생한 증언, 간간히 보여주시는 사진자료와 당시 유인식씨가 교장을 역임했던 ‘協東學校’ 관련 문건들을 보기 위해서 눈과 귀를 집중하였다. 대담 중간중간 많은 손님이 왔는데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고 안스러워 하시는 할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과일이며 집에서 손수 만드신 엿을 먹으며 2시간여의 대담을 마치고 다음 일정에 들어갔다. 이때 오전부터 흐려지기 시작한 하늘에서 때 이른 봄비(?)가 내렸고 가늘던 빗줄기는 우리일행이 권오설씨 묘에 다다르자 굵어지기 시작했다.

봉분도 없는 권씨의 묘는 안내인이 아니었다면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묘들 사이에 흔적도 없는 형태로 남아있었다. 권씨의 먼 일가 친척되시는 분의 설명에 의하면 한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권씨는 日帝에 의해서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死後 南韓의 右翼政權 아래서 역시 같은 이유로 권씨의 직계 가족까지 핍박을 받았다고 했다. 묘 위 검푸른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구천을 헤매는 권씨의 영혼이 흘리는 痛恨의 눈물인 듯 싶었다. 상념을 떨쳐버리고 마지막으로 찾아뵈신 분은 13살의 나이로 당시 豊山小作人會의 활동상을 직접 목격하신 이준영 할아버지였다. 앞선 두 분에 비해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李할아버지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당시 상황들을 하나

하나 기억하여 구술해 주셨다. 당신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들이어서 그런지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일행은 마치 당시 일본인 지주에 맞서 자신들의 당연한 권익을 주장했던 소작인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李할아버지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2박 3일 짧은 안동지역 현대사답사의 일정은 끝이 났다. 이번 답사는 자신의 전공 시대에만 매몰되어 다른 시기에는 무관심했던 나에게 2박 3일간의 華麗한 外道期間이었고, 이를 통해 전공자에 못지않게 현대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편집부에서는 『학생회보』 제 17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서평이나 영화평,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제언 등 형식과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마감은 1993년 6월말이며, 편집부장에게 직접 주시거나 각 전공대표 혹은 학생회 집행부원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모꼬지를 다녀와서

편 집 부

1993년 3월 5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의 모꼬지(옛날에는 M.T.라고 그랬다지요)는 또 한명의 스타를 만드는 날이었다고나 할까요?

반은 의무감으로 반은 어떻게 놀까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툭툭루 모꼬지를 떠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출혈을 감수한 댓가로 이번만큼은 뽀지게 먹어보겠다는 야무진 결심을 하면서, 소수 정예의 선발대가 먼저 경기도 양평의 플라자 콘도를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속속 도착한 후발대, 야발대까지 13명이 조출한 모꼬지를 시작했습니다. 새발대(이모군과 신모군은 새벽 3시에 도착했다나 어쨌다나)까지 합하면 모두 15명이 되겠구만요. 사학과 대학원에는 원래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모꼬지는 할일 없는 태평스런 사람이나 가는 건지.....

각설하고, 이런 모꼬지가 또 있을까요? 오자마자 고기 구워 밥먹고, 뜨뜻한 방바닥에 퍼져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필사의 추적”을 관람하다니..... 말이야 의·식·주라고 하지만, 그래도 먹는 게 남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모꼬지 와서 고기 먹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 텔레비전에 뉘을 뻔다는 건 누가 들어도 그다지 칭찬받을 일은 아닌 듯 하구만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뭘 했더라? 우리의 총무 박윤재 학형의 낮고 그윽한(쫓!) 목소리가 깔리면서 반쯤 조는 가운데 학생회 집행부의 보고를 들었지요. 새학기 집행부 사업에 대한 약간(!)의 토론이 끝나고 드디어 기대하던 진짜 모꼬지가 시작되었습니다. 10명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는(처음엔 그랬지요) 총무님의 협박에 따라 정말로 죄금 사다놓은 맥주와 풍부한 씹을 거리 + 고기 안주를 결눈질하면서 어린 신입생과 늙은 신입생들의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모 집안의 모 문화 학형이 정말로 ‘돌 굴러가는’(구모 학형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대충 알 겁니다) 말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거의 환각상태에 빠져서 뒹굴었습니다. 돌 굴러간다는 말이 그렇게 재미있는 말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왕’ 회장님께서 1993학년도 1학기 학생회 사업의 청사진을 펼쳐셨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사학과 학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체육의 날을 갖자는 의견에 신임 조교장께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셨지요. (이번 학기 학생회장과 조교장은 정말 죽이 잘 맞는다고나 할까) 회장님 말씀이 계속 되려고 하는데 ! 이번 모꼬지의 스타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새·발·대 !

벨 소리가 울리면서 현관에서 들리는 소란한 소리, 웬 시커먼스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여러가지 말들이 엇갈리면서..... “어이구 드디어 왔구나.” “애 데리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와글와글..... 이 스타를 데리고 온 이모 학형이 스타를 자리에 앉히고 왕회장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여~” 잉! 이게 웬 소리 ? (귀남이 아버지 소시적에 그랬을까)

어찌하였든 이 스타가 밥을 먹는 동안 무사히 왕회장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할 차례가 돌아온 우리의 스타 “뒤여~, 나보고 뭘 소리를 하라는 거여~, 나가 뭘 할 말이 있다고오~”

이 스타때문에 잘 나가던 아니 잘 나가려고 하던 분위기가 “잠이나 자자~”로 바뀌고(먹었으니까 자야겠죠) 스타의 소음을 자장가삼아 우리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새를 틈타 모꼬지를 기록, 보고해야 할 사람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곳곳하게 ‘아무데나 엎어져 자는’ 특기를 발휘했습니다. (그 잠든 모습이 천사같았다는 說이 있더군요. 천사도 천사 나름이겠지만요)

다음날 아침 7시, 네 남자와 한 여자가 남았습니다.....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학 내 외 동 정

< 신입교수 >

김준석 선생님께서 1993년 3월 우리학교 사학과 부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 동문 동정 >

조성을 동문(박사마침)이 1993년 3월 아주대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주용립 동문이 1992년 12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우리학교 원주 분교와 한남대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천진석 동문이 1992년 6월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우리학교와 원주 분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지원 동문(석사마침)이 대림공업전문대학에 전임강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김수영 동문(석사과정 중 도미)이 1993학년도 1학기 우리학교에서 대학원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중국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으며 1993년 1학기 졸업예정입니다.

김성보 회원(박사 5학기, 한국사)이 지난 3월 따님을 얻음과 동시에 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차 6개월 예정으로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우동수 동문(석사마침, 한국사)이 3월 따님을 얻었습니다.

오봉혁 동문(석사마침, 동양사)이 1992년 10월 군복무를 마치고 아현동 연구실로 복귀했습니다.

이상의의(석사 7학기, 한국사)·박평식 동문(석사마침)이 지난 3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 상계동으로 이사했습니다.

< 연구 발표 >

임성모 회원(박사 5학기, 동양사)의 논문 〈滿洲國 協和會의 對民支配政策과 그 실패〉가 《동양사학연구》 제 42집(1993)에 발표되었습니다.

정문상 회원(박사 6학기, 동양사)의 논문 〈국민혁명기(1923-1927) 운대영의 혁명관과 학생운동론〉이 《역사학보》 제 134·135 합집(1992.9)에 발표되었습니다.

김희교 동문(석사 마침, 동양사)이 〈의화단 운동이 제 2차 헤이노트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1993년 3월 13일 한글회관에서 열린 역사학회 월례 발표회에서 발표했습니다.

< 결혼 >

이현규 동문(석사마침, 동양사)이 1992년 12월 24일에 여의도 교원공제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윤덕영 동문(석사마침, 한국사)이 1992년 12월 12일 인천 은파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효숙 회원(석사 8학기, 서양사)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하나 회원(석사 5학기, 한국사)이 1993년 2월 6일 경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654-7861)

< 신입회원 >

1993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 신입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사과정 : 구문희(한국사), 신규환(동양사), 양일(서양사), 유원경(한국사), 윤정(한국사), 최주호(서양사), 홍순율(한국사)
- 박사과정 : 김순자(한국사), 남원우(한국사), 왕현종(한국사), 정세환(한국사), 이태실(동양사)

< 1992년 12월 학위취득자 >

채정복, 『艸衣禪師의 茶禪修行論』 (석사학위)

이수일, 『日帝強占・解放期 印貞植의 經濟思想 研究』 (석사학위)

박애림, 『朝鮮勞動共濟會의 活動과 理念』 (석사학위)

최용찬, 『제정 독일 '농촌 급진주의'의 한 원인으로서 농업보호 관세정책
1873-1890』 (석사학위)

박경안, 『高麗後期 田制釐正策의 推移』 (박사학위)

오영교, 『朝鮮後期 鄉村支配政策의 轉換』 (박사학위)

< 신입 과조교 >

1993학년도 제 1학기 사무조교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정세환(조교
장, 박사 1학기, 한국사), 문정희(석사 2학기, 동양사), 박태순(석사 2학
기, 한국사), 최주호(석사 1학기, 서양사)

< 1993학년도 제 1학기 학생회와 운영위원회 >

학생회장 왕현중(박사 1학기, 한국사) 총무 박윤재(석사 3학기, 한국사)
연구부장 이정훈(석사 2학기, 한국사) 섭외부장 김성수(석사 2학기, 동양
사) 편집부장 정용숙(석사 3학기, 서양사) 한국사 전공대표 노혜경(석사
4학기) 동양사 전공대표 이종원(석사 3학기) 서양사 전공대표 정용숙(석
사 3학기)

1993학년도 제 1학기 대학원 학사일정표

3.2	1993학년도 제 1학기 개강
3.11-13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
3.15	석·박사과정 종합시험 결과보고 마감
3.25-31	석·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교부 및 접수(학과)
4.10	석·박사학위논문 제출자 및 심사위원 추천 마감
4.16-17	1993학년도 제 1학기 수강과목 철회
4.17	재학생 외국어시험
4.24	학기 중간일
4.26	박사학위논문 원고 접수마감(5부)
5.1-10	석·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 기간
5.8	창립기념일
5.11	석·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마감
5.20-22	1993학년도 제 2학기 수강 예비등록
5.31-6.5	석·박사학위논문 체제검사(1부)
6.1-12	석·박사학위논문 본심사기간
6.5	1993학년도 후기 입학시험일(필답시험) 재학생 외국어시험(추가)
6.14	석·박사학위논문 본심사 결과보고 마감
6.19	석·박사학위논문 제출마감
6.21	여름방학 시작
6.25	1993학년도 제 1학기 성적보고 마감
8.9-21	1993학년도 제 2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휴학, 복교, 복학원서, 접수
8.20-21	신입생 및 복교, 복적생 수강신청, 재학생 추가 수강신청

15

8. 20 1992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8. 21 여름방학 끝

8. 23 1993학년도 제 2학기 개강

편 집 후 기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이 마무리다. 특별히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기세 좋게 시작해서 만용도 부려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도 끝이 보일 때쯤이면 이것 저것 잔손길을 요하는 마무리 작업이 끝없이 지겹게 느껴진다.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소소한 일들에 지치면, 빨리 끝장을 보고 싶은 초조감에 애써 해놓은 일까지 망쳐 버리는 수가 있다. 어쨌거나 며칠 후면 학생회보 제 16호가 나가게 된다. 판에는 꼼꼼하게 교정을 본다고 하지만, 완성된 학생회보를 받아들면 틀림 없이 한두개의 오자와 탈자들이 눈에 띄겠고 뭔가 더 잘 할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생길 터이다.

귀찮을 수도 있는 원고 청탁을 선선히 받아들여 글을 써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자청해서 원고를 주신 장모 선배에게 감사드린다.

배웠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잔손이 많이 가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일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회보를 만드는 일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의 미녀 편집부장과 야수 편집부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멋진' 표지로 장식된 학생회보를 만들어봅시다.

학생회보

제 16호

1993년 3월 일 인쇄

1993년 3월 일 발행

발행인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사학과 학생회

연락처 :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사무실 (☎ 02-361-2370)

